說話의 小說化

—雍固執傳과 裴裨將傳을 中心으로—

張 德 順
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
副 敎 授(國文學)

차 례

1. 野史와 說話(序言)
2. 雍固執傳과 同系說話
3. 裵裨將傳의 경우
4. 林白湖의 逸話와 小說(結言)

1. 野史와 說話—序를 대신하여

<野>는 民間의 뜻이다. 벼슬(官)과 對稱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野史는 民間中心의, 또는 私家記載의 歷史이다, 따라서 野史도 어엿한 歷史이지 하나의 說話는 아니다. 그러나 <野談>이란 것은 벌서 歷史인 野史에서 說話的인 領域에 가장 가깝게 接近된 것으로, 넓은 意味의 說話인 것이다. 野談은 野史를 줄거리로 해서, 거기에 興味나 혹은 神秘 같은 꽃과 잎을 곁들여서 맨들어진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實事인 野史와 想像인 說話와 共存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野史와 비슷한 것으로 또 稗史라는 것이 있다. <野>가 <民間><私家>의 뜻이 있다면, <稗>에는 <小>의 뜻이 있다. 따라서 稗史란 적은 事實을, 곧 「瑣細之事」를 기록한 것이다.(1) 漢書注에 「王者欲知閭巷風俗 故立稗官使說之」라고 있음을 보아, 百姓들의 風俗과 그 與

(1) 辭源.

論을 듣기 위해 <稗官> 곧 <小官>을 두었다고 했다. 이는 稗官이 閭巷風俗을 이야기하는 些少한 事實들이 稗史임을 알 수 있다. 이 稗史는 野史보다는 훨씬 좁은 事實, 그리고 非官之事인 오직 百姓들의 事實의 記錄이다. 요컨대 稗史는 小說이다. Novel로서의 小說이 아니라 瑣細한 民間의 이야기들이라는 말이다. 野史는 民間이 쓴 歷史이나, 그 資料는 擧皆가 國家나 政府, 王侯將相의 굼직굼직한 官邊의 歷史들이다. 그러나 稗史는 어데까지나 閭巷風俗의 이야기들이다. 說話의 世界에서 볼 때에는 稗史가 훨씬 童話的이다.

發生的인 動機에서 볼 때, 野史는 貴族的이오, 稗史는 庶民的이다, 따라서 野談도 그 發生의 溫床은 官邊이오, 兩班의 領土이었다. 그러나 野史에서 派生하여 이야기化된 野談은 이미 說話이지, 歷史 그 自體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野史는 아직 歷史이지 그것이 그대로 說話일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神話·傳說·民譚(옛날이야기) 등을 총칭하는 說話는 또 역사에서 파생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기에 古代에 거슬러 올라갈수록 歷史와 說話와의 사이에 限界線을 劃하기 힘들다. 一然의 三國遺事所載의 記事만 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說話와 歷史를 區別하기가 힘들다. 이는 所謂 正史와 野史를 區別하기 힘든것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野史도 野談도 많다. 이 많은 野史의 處理는 歷史에서, 野談의 處理는 說話에서 맡아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고 兩者의 完全한 分離作業은 不可能하다. 協同作業이 必要하다. 그만큼 兩者는 서로 交流되어 있어 截然한 區劃線을 그을 수가 없다.

나는 野史나 野談자체에 대해서 論述하려는 것이 아니다. 野史에서 派生된 瑣細之事——이것을 흔히 <實事>라고들 일러왔다——를 中心으로, 說話와 古典小說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려는 것뿐이다. 所謂 實事가 小說의 素材로 된 것도 많거니와, 또 거의 無數히 있는 說話도 사실은 이 興味있고, 奇拔한 實事에 발을 붙이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아직 學界의 未解決, 또는 未洽한 과제로 남아있는 雍固執傳과 裵裨將傳을 우리나라 野乘에 叢集되어있는 資料와, 또는 民間에 流布되어 있는 民譚들과를 연관시켜서 그의 小說 乃至는 文學化의 과정을 추구해 보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說話文學의 理論을 實踐的으로 試驗하는 方法이 되기 때문이다.

그 具體的인 資料는 上揭한 두 개의 小說과, 1918年刊인 <實事叢譚>[2]을, 그 基本資料로 삼고, 그 밖에 現存하는 民譚을 傍系로하여 살펴보고, 結言에서는 實在人物이었던 風流의 好男兒 林悌의 逸話와 妓生登場의 小說과를 비교하여 <說話와 小說>의 相互의 紐帶를 살펴서, 說話文學의 片貌를 찾아보기로 하겠다.

2. 雍固執傳과 同系說話

일직부터 廣大들에 의해서 판소리로 불리워 졌고. 또 많은 讀者를 갖고 있었던 이 小說은 現在에 와서도 現代化, 映畵化되어 時代의 脚光을 한몸에 받고 있는 問題의 作品이다. 더욱 그 諷刺와 諧謔은 더 흥미있어 어느 時代에나 많이 익힐 作品이다. 그런데 斯界에서는 아직도 이 作品의 具體的인 分析이나, 그 根源素材에 대한 硏究가 그리 깊이 들어가 있지 않다. 더욱 興夫傳이나 裵裨將傳 같은 餘他의 唱劇本小說들은 모두 그 素材가 되는 說話를 정리했으나, 아직 雍固執傳은 佛敎說話에서 由來했으리라는 推測에만 그치고 있을 뿐, 그 具體的인 母系說話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 本作品의 素材가 되는 國內話說 두 개를 우선 소개하겠다.

쥐(鼠)說話

(2) 崔永年 編, 全二卷에 262편의 稗談野說이 收錄되었다. 그 序에 依하면 대개 朝鮮野乘에서 뽑은 것이라 했고, 그는 이미 <凍硯破寂錄>이란 上下編의 說話集을 낸 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實事叢譚은 國漢混用의 文體로 쓴 것인데 說話硏究의 좋은 資料이다.

「옛날 어떤 富豪의 집 며느리가 어느날 부뚜막에 바짝 마른 쥐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밥을 주었단다. 그 후부터 매일 아침마다 나타나서 거의 관습적으로 밥을 풀 때에는 의례히 첫주걱으로 쥐에게 밥을 제공했다. 이러기를 근 일년을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의례히 나타나야 할 이 쥐는 나타나지 않았다. 며느리는 이상히 여겼으나, 하는 수 없이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려서 사랑방에 들어갔다. 이상한 일이다. 꼭 같은 시아버지가 둘이 있지 않은가? 깜짝 놀란 며느리는 밥상을 어느 앞에다가 놓아야 할지를 모르다가 방 한가운데 놓고는 나와 버렸다. 眞·假의 두 시아버지는 그날부터 각각 자기가 진짜라고 싸움들이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결국 힘센 假媤父가 이기고 眞媤父는 쫓겨났다. 집을 쫓겨난지 거의 돌이 되었다. 眞翁은 어떤 山마루에 앉아서 "세상엔 이런 일도 있는가" 하면서 신세한탄을 했다. 이 때 어데선가 이쁜 여인이 나타나서

"이 괭이(猫)를 드릴테니 데리고 가서 사랑방의 그 사람앞에 놓이소"라고 하기에 그 괭이를 받아서 총총이 집으로 돌아왔다. 假翁은 또 야단이었다. 眞翁은 슬그머니 도포자락 속에서 괭이를 내놓았다. 괭이는 금방 假翁에 달려들어서 물어제꼈다. 과연 假翁은 큰 쥐로 化하여 죽어 넘어졌다. 이 광경을 본 며느리도 氣絶해서 넘어졌다. 온 식구는 며느리를 깨워서 그 연고를 물었다. 며느리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식구들은 며느리의 소행이 괘씸하다고 곧 逐出해 버렸다. 그 괭이는 곧 이쁜 여자로 化하여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다.」(3)

---

(3) 慶北 安東郡 一直面 造塔面 權有述 口述, 權正生 採集. 1962, 9, 6 한국일보에 採錄되어 있다. 이는 具體的이고 또 口述그대로 採集되어서 參考에 裨益이 많다.

金慶爭主說話

「高麗時 金大運의 號는 種菴이니 少時에 貧寒ㅎ야 農業資生ㅎ야 慶姓富豪로 隣比에 居ㅎ더니 一日 富豪가 糞田홈을 監督홀 時에 一乞僧이 來ㅎ야 午飯을 乞ㅎ거날 富豪大怒ㅎ야 鍤으로써 挑糞而與ㅎ니 僧이 鉢盂에 受ㅎ야 曰感謝라ㅎ고 金家에 來ㅎ야 又乞하거늘 金이 見之甚矜ㅎ야 妻와 謀ㅎ고 一器飯을 新炊ㅎ야 鉢盂를 精洗ㅎ고 蔬菜로 供하니 僧이 食訖에 曰小僧이 草履가 已弊ㅎ얏스니 藁草小許를 與ㅎ면 閉門結屢ㅎ깃노라ㅎ거늘 金이 與之러니 日暮에 僧이 辭去ㅎ는지라 金이 入室ㅎ니 僧은 無ㅎ고 一老人이 白銀一百錠을 持ㅎ고 家舍를 建築ㅎ며 田畓을 買入하고 什物器具와 奴婢使令을 一新準備ㅎ고 金다려 善居善處ㅎ라 ㅎ고 因忽不見ㅎ니 富裕豐阜홈이 慶家보담 十倍隆盛ㅎ지라 慶이 心中에 憤惋猜忌ㅎ야 其僧을 苦待ㅎ더니 一日은 果然乞僧이 復來ㅎ지라 慶이 拜而請益富ㅎ더 僧이 慨然許之ㅎ고 藁草小許를 請ㅎ고 閉門不見홈을 要ㅎ더니 日暮에 出去ㅎ거늘 慶이 望望入室ㅎ니 忽然一人이 突出曰何人이 敢히 我內室에 入ㅎ누뇨 兩人이 爭鬪不已ㅎ거늘 家人이 會見ㅎ야도 兩人의 形貌相肖ㅎ야 毫髮不差홈의 眞僞를 不能卞이라 洞里가 畢集ㅎ야도 亦然하니 擧皆噬呆而已라 其人이 慶婦와 同處ㅎ고 豪慶을 逐出ㅎ여 蓄錢을 散用ㅎ야 每日 牛酒로 洞里를 犒饋ㅎ며 田土를 歇價斥賣ㅎ야 貧窮을 周恤ㅎ야 財產이 殆盡홈에 至홈의 慶豪ㅣ告官請卞ㅎ더 官이 兩人을 招問ㅎ니 其人은 田土의 字號와 結卜의 多寡를 明卞如流ㅎ되 慶은 不能一言ㅎ는지라 官이 慶을 笞ㅎ야 逐出ㅎ니 其人이 什物을 盡賣ㅎ고 家屋을 毁破ㅎ야 數月之內에 蕩敗無餘ㅎ고 但히赤身의 家口만 餘ㅎ지라 慶이 狂惑感疾ㅎ야 呌呼不已홀 ᄯᆞ름이러니 其乞僧이 復來ㅎ야 曰 業畜은 人間의 苦樂을 覺悟ㅎ얏는가 ㅎ고 錫杖으로 其人을 一打ㅎ니 藁草小許가 仆地ㅎ는지라 乞僧이 飄然不顧而去ㅎ더

라.」[4]

위에 雍固執傳과 同系인 國內說話 두 개를 引用했다. 同系라고는 하나, 그 主題에 있어서는 兩說話가 相異하다. 오직 眞·假의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實人이라고 다투는 것이 같을 뿐이다. 要컨대 <쥐 說話>는 不孝를 懲戒하는 것을, <金 慶 爭主說話>는 排佛을 懲戒는 것을 각각 主題로 했다. 따라서 이 두 說話는 雍固執傳을 形成하는 두 갈래의 特異性을 나타냈으나, 佛敎的인 潤色度에 있어서는 <金·慶·爭主說話>가 훨씬 雍固執傳에 가깝다. 여기 上揭 兩說話를 간단히 分析하고 이것의 母胎說話라고 볼 수 있는 印度說話를 소개하겠다.

<쥐 說話는> 쥐와 괭이,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등장시켰다는 것이 이 說話의 特色이다. 이는 素朴한 民俗的 說話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效果를 들여내는 與件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쥐는 우리 說話와 小說的作品의 主人公으로 많이 등장한다, <쥐傳>, <鼠同知傳> 같은 것은 그 좋은 例이지만, 쥐가 魔力을 가지고 있다는 說話는 於于野談에도 나온다. 古家의 鬼神이 항상 主人을 괴롭혀서, 사람이 붙어 살 수가 없었다. 이윽고 方士의 말을 듣고 들쥐(野鼠)를 잡아서 그 고기를 鬼神에게 먹였더니 鬼神은 곧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5]

쥐가 나오면 괭이가 나오게 마련이다. 猫鼠는 古來로 相剋이다. 사람으로 化한 쥐에게 괭이가 나타나서 그 妖物을 退治시키게 한 이야기는 자연스런 결구이다. 그러나 이 說話에서 무엇보담도 가장 중요한 契機가 되는 것은 며느리가 늙은 쥐에게 밥을 퍼주는 대목이다. 그것도 아침밥의 첫 주걱으로 푼, 이른바 숫밥을 쥐에게 주었다는 사실이다. 우리 民俗에서는 숫밥은 의례히 집안 어른의 밥그릇에 먼저 푸기마련이

(4) 實事叢譚 卷二 p. 154. "禍福無非自己召"條, 全文.
(5) 於于野談, 李秉岐註, p. 85 <古家鬼神>.

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쥐가 하도 굶주려서 그를 동정하느라고, 시아버지에게 드려야 할 숫밥을 쥐에게 일년이나 퍼주었다는 것이다. 집안어른이 먹어야 할 숫밥을 먹은 늙은 쥐는 어느새 자기가 집안어른이 되고 싶었고, 또 실제로 그 어른의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과연 고 깜찍한 쥐로서는 한번 해 볼만한 장난이기도 하다. 이 說話의 妙處는 여기에 있다. 愚直하기만 한 며느리는 惡意없이 쥐에게 善心을 베프렀으나, 그것이 결국 不孝婦가 되고 말었다는 素朴스런 結末이다. 不孝婦의 說話가 우리 民俗에 많으나, 이렇게 쥐와 因緣하여서 眞·假의 두 主人이 相爭하는 爭主說話로 발전했다는 것은 정녕 奇拔한 결구가 아닐 수 없다.

<金 慶 爭主說話>는 蒙古의 <박타는 處女> 系의 說話인 一種報應說話와 相通한다. 이 系統의 小說인 興夫傳에서 본다면 慶姓의 富豪는 놀부, 金大運은 興夫에 해당하고, 興夫傳의 <박>의 奇蹟이 이 說話에서는 一老翁의 奇蹟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를뿐, 그 勸善懲惡의 主題性은 酷似하다. 그러나 이 說話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은 佛敎的 色彩이다. 僧侶가 한 부호에게서 당한 모욕에 대한 복수이다. 聖職者를 모독한 代價는 곧 敗家亡身의 결과 밖에 없고, 聖職者를 우대한 代價는 부귀를 누릴 수 있다는 宗敎的 異蹟을 濃度짙게 이야기한 것이다.

<쥐 說話>에서는 쥐에 숫밥을 퍼 준 며느리의 그다지 意識的이 아닌 不孝가 발단이 되어 쥐와 고양이가 등장하여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과 결말을 갖어오게 했는데 反하여 이 <金 慶 爭主說話>에서는 動機가 意識的이오, 적극성을 띤 排佛行爲요, 그 응징에 나선 存在가 僧侶요, 그 결말을 해결하는 것도 僧侶의 <錫杖>이었다는 것은 이 說話의 佛敎的 意義를 짐작할 수 있게한다. 그러나 前者(쥐 說話)는 전혀 이런 宗敎的 意圖가 없을 뿐더러, 不孝에 있어서도, 며느리의 적극적인

不孝든가, 또는 意識的이고 奸巧를 極한 不孝는 전혀 없다. 오직 微物인 쥐에 대한 동정이 결과적으로 不孝를 저질르게 되었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쥐 說話>는 假·眞 두 사람의 爭主에 重點을 둔 童話的 분위기에 있는 素朴한 설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쥐 說話>에는 主役人物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뿐이고, 그 밖에는——사실은 더 중요한 主役이지만——쥐와 고양이다. 그러나 後者(金 慶 爭主說話)는 金大運과 慶姓富豪라는 對照的인 人物을 미리 設定했고(쥐 설화에는 이것이 없다), 事件發端에는 乞僧이 등장했고, 이 乞僧의 術法으로 老翁이 나타났고, 이러는 동안에 金大運은 富豪가 되고, 慶姓은 沒落하게 되고, 끝에 가서는 처음의 乞僧이 다시 나타나서 靈驗의 錫杖으로 假翁을 一打하여 事件의 終末을 가져오게 한, 그야말로 극히 論理的이오, 作意的인 事件展開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國外에서 同系說話를 引用 소개하겠다. 印度에 이와 酷似한 說話가 傳하고 있다는 것은 興味있는 일이다.

<구두쇠 이리이샤>

「이리이샤는 유명한 부자요, 또한 구두쇠로도 이름난 사람이다. 코끼리가 수십마리씩 있어도 걸어다니는 위인이다. 한번은 國王이 그를 불렀으나. 그는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코끼리를 타고 가면 코끼리가 배가 고플 것이고 그러면 먹이를 더 많이 먹어서 손해고, 남이 보면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지가 달라붙고, 또 稅吏가 귀찮게 해서 손해지"라고 할 정도로 인색한 사람이다.

王城 근처에서 웬 시골 청년이 만두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매우 맛있게 먹었다. 이리이샤도 먹고 싶었다. 만두가 그렇게 맛있는 것인지를 그는 아직 몰랐었다. 집에 돌아가서도 만두를 꼭 해먹고 싶었다. 그러나 인색한 그는 만두를 만드는 데 많은 자료가 들고, 또 많은 안팎 식구가 달려 들어서 먹으면 손해가 클 것이라

고 참았다. 먹고 싶은 것을 참노라니 병이 들었다. 아내가 그 연유를 물은즉 이리이샤는 마침내 만두가 먹고 싶어서 병이 든 것이라고 했다. 아내는 곧 만두를 하려 했으나, 이리이샤는 아무도 모르게 칠층 꼭대기방에서 문을 잠그고 아내와 함께 만두를 만든다. 김이 물씬 물씬 먹음직스런 만두는 다 되어간다. 그때다. 窓밖의 공중에 어떤 사나이 하나가 거꾸로 서서 눈을 부릅뜨고 들여다 보고 있었다. 이 이상한 사람의 요술로 결국은 만두를 모두 그에게 주고 자기는 하나도 못 먹었다.

얼마후 이리이샤는 닭고기가 먹고 싶어서, 닭을 잡아 혼자 먹으려고 사람이 안 보는 깊은 동굴속에 들어갔다. 막 닭을 먹으려고 펴 놓으니 개 한마리가 나타났다. 개의 끈덕진 요술에 겁이 나서 이리이샤는 집으로 도망해 왔다. 집에 와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자기와 꼭 같은 주인인 이리이샤가 이미 집에 있었던 것이다. 하인들은 이 가짜 이리이샤를 진짜로 알고, 진짜 이리이샤를 내쫓으려 했다. 眞·假의 이리이샤는 한참 싸웠으나, 결국 眞짜 이리이샤는 집을 쫓겨나고 말았다.

쫓겨난 이리이샤는 정처없이 헤매었다. 분하기는 하나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신세한탄을 하다가 어떤 老翁을 만났다. 老翁은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물었다. 이리이샤는 억울한 사정을 토로했다. 老翁은 이 말을 듣고 노래를 불렀다. 인색한 자는 거지가 되고 돈은 해서 무엇하느냐는 뜻의 노래를.

이리이샤는 그 노래 소리를 듣다가 문득 그 老翁을 바라보니, 그는 바로 자기 집에서 본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다시 동굴에서 본 개로 化했다가 마침내는 거룩한 帝釋神의 모습으로 化했던 것이다. 帝釋神은 三十三天을 領有하고 四天王을 거느려 阿修羅를 정복하고 天下를 살피어 萬民의 善行을 표창하고, 惡行을 징계하는 분

이다.」

이리이샤는 그 분앞에 꿇어 엎디어 속죄 해 줄 것을 빌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6)」

이것은 완전히 佛敎的 意識을 짙게 하는 종교설화이다. 金慶 爭主說話는 "이이리이샤"說話의 亞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야기의 構造나 전개는 前者가 훨씬 意識的이오, 作品的이다. 前者는 무엇보다도 善·惡의 상극되는 두 人間을 미리 제시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리이샤"의 얘기는 始終 인색한 이리이샤 하나만을 내세워서 說話的인 素朴性을 지키고 있다.

결국 이 두 說話의 目的은 悔改에 있다. 僧侶나, 帝釋神의 靈驗으로 욕심 많고 인색한 사람이 참회하여 佛道에 歸依한다는 것이 그 主題로 되어 있다. 雍固執傳의 目的意識도 여기에 있다.

「도승의 술법을 탄복하여 모친께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여 개과천선하니 그 어짊을 칭찬하더라」

이것은 雍固執의 회개를 서술한 雍固執傳의 末尾이다.

要컨대 眞·假의 두 主人이 爭鬪하는 이야기는 印度의 佛敎說話에서 根源하여 이 땅에 流布되어 한 갈래는 소박한 民俗의 이야기로, 한갈래는 그 源流대로 佛敎的 說話로 뻗어나간 것이라고 생각되나, 여기 倫理的인 <孝>가 그 중심 테—마를 이루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金慶 說話에는 孝가 없으나, 쥐說話와 雍固執傳은 孝가 곁드려 있다).

생각컨대 雍固執傳은 직접 印度說話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金慶 說話와 쥐 說話의 영향에서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쥐 說話에서 孝를, 그 밖의 佛敎的素材는 金慶 說話에서 얻어진 것임은 如上의 叙述에서 짐작이 간다.

그러나 이 推論은 어데까지나 雍固執傳이라는 作品과 完成型에 가까

(6) 乙酉文化社刊 "世界野談史話全集" 印度篇에서 要約引用.

운 위의 두 說話를 놓고 결과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우리 民間에 流傳하는 이 系統의 說話를 分析해 볼 때에는 前揭한 쥐說話와 金 慶 說話를 형성하는 또 두 갈래의 說話型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것은 虐僧說話와 眞·假爭主說話인 것이다. 前者의 例를 奎章閣 邑誌에서 세개를 引用하면 아래와 같다.

「어느날 중이 門前에서 供養米를 請하거늘 主人公인 富翁은 소똥을 퍼주었다. 중이 순순히 받아가지고 가니, 그 집 며느리가 이를 보고, 가만히 쫓아가서 중의 바랑을 빼앗아 깨끗이 빨고 쌀을 가득히 담아 주었다. 중은 역시 순순히 받아 들며 말하기를 『婦人宅이 數日內에 爲魚之患을 當하리니 속히 저 山에 올라가서 避하시오』하고 가버렸다. 婦人이 아이를 업고 山에 올라 그 집을 본즉 집은 이미 咸沒하여 연못이 되었으므로 佇立하여 痛哭하다가 아이를 업은 채로 化石이 되었다.」(7)

「옛날 千枝·萬枝 두 富人이 財物모으기를 대단히 貪하였다. 어느날 異僧이 供養米를 請하거늘 萬枝가 소똥을 퍼서 鉢에 채워 주었다. 이를 본 딸이 크게 놀라 鉢을 빼앗아 쌀을 채워주었다. 중이 말하기를 『來日 午時에 몸을 피해 臺上으로 올라가시오, 그러지 않으면 大患을 當하리다』하였다. 딸이 그 父親에게 告했더니 믿지 않았다. 翌日에 果然 暴雨가 쏟아져 漲溢하여 집터가 연못으로 변하였다. 딸은 혼자 피하여 禍를 免하니 世人이 乞僧을 龍神이라 하였다.」(8)

「옛날 或者가 壽僧山 西麓下에 살고 있었는데 집은 甚히 富하나 매우 吝嗇하여 山僧이 屢次 供養을 請해도 끝내 쌀 한톨 주지 않았다. 山僧이 忿心을 품고 後日에 自稱 堪輿之術에 能하다 하고 主人

(7) 奎章閣 圖書 康翎邑誌 古蹟條, <跡婦岩>.
(8) 同上 咸昌邑誌·古蹟條 <萬枝臺>.

에게 『案山 바위에 龍의 모습을 彫刻하면 집이 더욱 富하게 되고 크게 貴하게 되리라』고 하니 主人이 기뻐하고 그대로 龍을 彫刻하였다. 그랬더니 그 富者는 오래지 않아 敗家하였다. 대개 집터는 蛙形이었던 故로, 山僧이 꾀어 龍을 파게 한 것인즉 龍 即 蛇는 蛙와 서로 상극인고로 敗家한 것이었다.(9)

이런 類의 說話는 많다. 崔來沃君(10)의 募集에 의하면 이미 20개 가량 수집되었는데 <陷地傳說>(崔常壽)·<廣浦說話>(孫晋泰) 등으로 命名되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이다. 東人詩話·青邱野談 등에 傳하는 江陵의 鏡浦臺와 紅粧傳說도 이 系의 이야기인데 이 系統說話의 한결같은 特徵은 富者의 <虐僧>으로 敗家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虐僧>이라는 것은 이미 佛敎的으로 짙게 潤色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後者 곧 眞·假爭主說話는 우리의 民間信仰에서 由來한 民俗味가 있어서 흥미롭다. 이 說話는 <遁甲>이라는 魔術이 가미되어서 형성된 것인데 이미 孫晋泰氏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는 <손톱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11)는 것이 있다. "절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버린 손톱을 먹은 쥐가 둔갑하여 주인행세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非人間的 存在가 人間으론 化한다는 俗信에서 유래한 이야기들이다. 쥐 이외에도 개나 닭이 人間으로 變貌한다는 이야기들도 모두 이 계통의 說話들이다. 雞不三年, 狗不十年이란 俗談은 이것을 설명해 준다. (이 계통의 說話는 위에서 引用한 崔來沃君이 多數蒐集 하였음을 여기 밝혀 둔다.)

이미 위에서 引用한 <쥐 說話>와 <金慶 爭主說話>는 곧 우리

(9) 同上 松禾邑誌·古蹟條 <龍岩>.
(10) <우리文化硏究會> 月報 27회 (崔來沃).
(11) 朝鮮民譚集(日語)「瓜を粗末にしてはならぬ」.

民俗에서 유래한 <遁甲>과 佛敎에서 유래한 <虐僧>이 근원이 되어 결합된 비교적 完成型의 說話요, 雍固執傳은 이 두 가지 要素를 줄거리로 하여 <孝>를 意識的으로 내세워 勸善懲惡의 主題를 강조한 作品인 것이다.

3. 裴裨將傳의 경우

裴裨將傳은 拔齒說話와 米櫃說話에 그 根源을 두고 있다는 것은 거이 學界의 通說로 되어 있다.(12) 拔齒說話는 太平閑話 滑稽傳에, 米櫃說話는 東野彙輯에 각각 傳하고 있다. 이 것은 이미 紹介되어 있기에 그 全文을 引用할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論述의 便宜上 그 간단한 줄거리만을 要約하겠다.

<拔齒說話>

『長安의 한 少年이 慶州美妓에게 惑하였다. 離別에 즈음하여 妓는 信物로 「切身之物」을 요구했다. 少年은 「折板齒」하여 妓에게 주고 還京했다. 뒷날 그 妓女가 다른 男子와 좋아 지낸다는 말을 듣고 蒼頭를 急派하여 板齒를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妓女는 男子의 이가 들은 布帶 하나를 던져 주며 少年을 비웃었다.』

<米櫃說話>

『妓流를 貶視하는 盧文官이 敬差官으로 慶州에 이르렀다. 府尹과 妓生이 共謀하여 盧敬差官을 시험해 보려고, 어린 妓生을 村婦로 변장시켜서 敬差官에게 接近시켰다. 과연 敬差官은 그녀에게 惑하여 밤마다 情을 통했다. 어느날 男便(官奴 鐵虎가 僞裝)이 들어 닥쳐서, 당황한 敬差官은 裸體의 몸으로 米櫃에 숨었다. 결국 男女는 米櫃를 東軒에까지 끌고 가서 開櫃하여 敬差官은 滿庭衆視裏에 망신을 당한다.』

(12) 金東旭著「韓國歌謠의 硏究」中 "판소리發生攷"

위의 두 說話는 과연 裵裨將傳을 형성하는 좋은 素材이다. 즉 <拔齒>는 前半部(鄭裨將과 愛娘)요, <米櫃>는 後半部(裵裨將과 愛娘)와 酷似하다. 그러나 위의 두 <說話>는 그야말로 한갓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現實的 事實인 <實事>에서 퍽으나 飛躍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이런 非現實的인 說話以前에, 現實的으로 可能한 <實事>가 있어서, 그것이 說話的으로 肥大하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說話의 小說化過程을 考究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實事>를 더듬어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곧 實事에서 說話로, 說話에서 小說로 移行, 昇華하는 過程의 把握이 說話文學의 한 課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米櫃說話>의 前身이라고 생각되는 實譚 하나를 引用하겠다.

『昔에 一 名宰가 有ㅎ야 巡按御史로써 全州에 到ㅎ야 스ᄉᆞ로 名位를 恃ㅎ고 倨傲無比ㅎ야 房妓를 命却ㅎ고 항상 獨處ㅎ니 監司府尹이 密議ㅎ고 期於히 簸弄ㅎ려ㅎ야 이에 衆妓中에 才藝와 容貌가 超越ㅎ者를 選ㅎ야 淡粧素服으로 村婦貌樣을 扮作하고 ㅎ여곰 御史下處近邊에 頻數往來케ㅎ고 陪童을 豫約ㅎ야써 隨問應辯ㅎ라 ㅎ얏더니 妓가 分付와 같이 做去ㅎ뫼 御史가 果然 一見心愛ㅎ야 陪童다려 問曰 彼는 何如女子뇨 曰 小人妹로소이다. 御史曰 엇지 素服을 着ㅎ뇨 對曰 夫를 喪ㅎ고 아직 闋服지 못ㅎ얏ᄂᆞ이다. 御史가 能히 抑情치 못ㅎ야 一日夜는 陪童을 誘ㅎ야 가만이 要來ㅎ라ㅎ니 童이 거짓 渠妹의 性情固執을 備言ㅎ고 再三推諉ㅎ다가 終末에는 不得已ㅎ 貌樣으로 許諾ㅎ고 翌夜에 가만이 引納ㅎ니 妓가 狐媚態度를 盡ㅎ야써 蠱惑ㅎ고 是로부터 夜入曉出ㅎ더니 一日夜는 妓가 情으로써 先誘後激ㅎ야 微服으로 其家를 一訪홈을 請ㅎ뒤 御史가 許諾ㅎ고 드디여 妓로 더불어 其家에 潛到ㅎ야 解衣就寢ㅎ얏더니 監司가 知得ㅎ고 都事府尹으로 더불어 別堂에 設宴ㅎ니 是夜에 月色이 白晝

와 如ㅎ지라 聲樂을 크게 張ㅎ고 倡優를 招入ㅎ야 庭下에서 雜戲를 呈ㅎ고 士民으로 ㅎ야곰 縱覽케ㅎ야 門을 大開ㅎ고 禁치 아니ㅎ니 妓가 거짓 此說을 御史에게 告ㅎ고 百般誘說ㅎ야 더불어 往觀ㅎ기를 請ㅎ더 御史가 初에는 再三不肯ㅎ다가 不得已許諾ㅎ고 妓로 더불어 同入ㅎ시 妓曰 此에 吾母頭弄達伊와 黑色長衣가 有ㅎ니 使道가 만일 此를 着ㅎ고 入去ㅎ시면 變服藏踪法이엇지 妙치 아니리오 御史가 稱善ㅎ고 드디어 老婦形狀을 作ㅎ 後 妓로 더불어 作伴ㅎ야 衆人叢中에 雜入ㅎ야 庭畔竹林內에 隱身觀見ㅎ니 監司는 발서 御史入來ㅎ음을 探知ㅎ고 곳 下令曰 觀光者가 너무 多ㅎ니 門을 閉ㅎ야 出入을 禁ㅎ라 ㅎ고 다시 座中에 言曰今夜宴席에 御史를 請치 못ㅎ얏스니 자못 事體를 失ㅎ얏도다. 皆曰 然ㅎ야이다. 急히 幕僚를 送ㅎ야 要請ㅎ라ㅎ니 回報ㅎ야 曰 御使道가 不在ㅎ시미 四方으로 窮搜未得ㅎ얏나이다. 監司가 다시 命ㅎ야 모든 官舍에 遍索ㅎ나 맛참니 得지 못ㅎ는지라 府尹이 言 曰御史가 或微行ㅎ야 觀光叢中에 入ㅎ음이 無ㅎ가 이에 閽者를 命ㅎ야 門半扉를 開ㅎ고 庭中人을 次第出送ㅎ야 御史踪蹟을 求ㅎ라 ㅎ니 良久에 庭中人이 모다 去ㅎ지라 監司가 또命ㅎ야 竹林內々지 更搜ㅎ라ㅎ니 分付가 下ㅎ미 奴令輩가 一齊히 竹林으로 奔入ㅎ야 此搜彼覓ㅎ다가 齊聲大呼ㅎ되 此에 二人이 有ㅎ야 隱伏ㅎ얏다ㅎ고 引出ㅎ더니 또 喧呼ㅎ되 一人은 女長衣를 服ㅎ고 頭弄達伊를 戴ㅎ얏스나 鬚髯이 甚多ㅎ도다. 又曰 此人顏貌가 御史道와 恰似ㅎ도다. 監司가 陽驚ㅎ되 엇지 此理가 有ㅎ리오 庭前으로 速히 携來케ㅎ야 其戴ㅎ바 頭弄達伊를 去ㅎ라ㅎ니 果然 御史라 滿堂座客과 밋 妓女樂工이며 至於奴令等屬々지 掩口絶倒치 아는 者가 無ㅎ지라 監司가 御史다려 謂曰엇지 此樣을 做ㅎ얏뇨 御史가 沮喪ㅎ야 頭를 垂ㅎ고, 言치 아니ㅎ는지라 監司가 御史로 ㅎ야곰 其服色으로 上席에 據ㅎ고 其所變村婦로 坐側에 侍케ㅎ니 村婦는 곳

妓女라 이에 酒를 命ㅎ야 長醉ㅎ고 終庭토록 玩弄ㅎ기를 已치 아니ㅎ얏더니 明日御史가 徑去ㅎ고 此로 由ㅎ야 世에 見棄ㅎ니라.』(13)

위에 引用한 이야기는 現實的으로 可能한 事實이다. 여기에도 若干의 誇張은 있다. 例컨대 御史가 黑長衣에 頭弄達伊를 쓰고 夜陰을 타서 村婦(?)와 雜戲 구경을 간다는 것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板齒를 뽑던가, 혹은 折斷하는것 이라든가, 衆人이 環視하는 마당에 裸體로 辱을 當하는 것에 比하면 훨신 現實性이 있다는 것이다. 오직 어색한 그 服色으로 上座에 앉어서 監司의 譏弄을 받었다는, 끝의 部分이 造作 같기도 하나, 裸體의 逢辱보다는 現實的 事實에 가깝다.

위의 全州御史 이야기에는 拔齒事件이 없다. 이는 裵裨將傳에서 裵裨將과 愛娘과의 事件과 酷似할 뿐이다. 拔齒의 事件은 鄭裨將과 愛娘의 사이에서 나타났을 뿐이다. 愛娘은 鄭裨將에게 計劃的인 掠奪을 漸層的으로 致行하여 마침내 絶頂에까지 이르게 한다. 拔齒事件은 그 絶頂에 이른 事件이다. 鄭裨將이 愛娘에게 주는, 아니 빼앗기는 贈與선물(?)의 順序는 이러하다.

① 倉庫의 베짐(온갖 물건)——② 갖 두루마기——③ 豚皮揮項——④ 鐵柄刀——⑤ 창의와 바지——⑥ 고의와 적삼(여기서부터 裸身)——⑦ 상투(失敗)——⑧ 皓齒——⑨ 밑천씨(失敗).

이 과정에서 現實的으로 可能한 것은 ①에서 ④까지이다, 그 이후는 터무니 없는 誇張이오 戲畵이다. 특히 拔齒의 說話를 보면,

『……願得切身之物, 不顧財賄, 少年則斷毛髮而與之 娼曰 毛髮猶外也 願得尤切者 少年折板齒與之……』(14)

로 되어 있어 기껏 毛髮을 信物로 줄 수는 있어도 이(齒)를 뽑아서 信物로 준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理解가 안 간다.

---

(13) 「實事叢譚」 卷一 "風流陣中一御史".
(14) 「太平閑話滑稽傳」中 「拔齒說話」의 一節.

그러나 이 단순한 信物說話가 裵裨將傳에 와서는 놀랠 정도로 飛躍, 擴大되었다. 그것도 質的인 飛躍이 아니라 거이 稚拙할 정도의 量的인 飛躍인 것이다. <고의와 적삼> <상투> <이> <씨>까지 요구한 것은 이것을 잘 설명한다. 그래도 鄭裨將은 <상투>와 <씨>는 끝내 못 주고 말었다. 이것은 裸身이 되어 이까지 빼어 주는 爲人으로도 不可能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作品은 實譚에서 또는 說話에서 無謀할 정도로 二段, 三段의 跳躍을 敢行하였던 것이다.

裵裨將傳에서 문제되는 것은 裵裨將의 逢辱場面인데, 이는 實事→說說→小說의 移行過程을 窺知할 수 있는 資料가 多幸히 남아 있어서 興味롭다. 그러나 事件自體로 볼 때에는 裵裨將傳은 米櫃說話에서 飛躍도 進展도 없다는 것이다. 애써 妓女를 忌하는 체하는 사나이, 有夫女로 扮한 妓女, 裸體의 등장등은 兩者가 모두 一致한다. 兩班이나 中人이 妓生, 奴僕까지 둘려있는 衆人가운데 裸身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實譚에서는 절대로 不可能한 일이다. 米櫃說話에서 裸體의 差官은

『……一府上下莫不駭慚掩口 衆視之乃差官 乃府尹命以上之 差官以兩手 掩其下體 躍步陞堂 蹲坐一隅 垂頭喪氣 府尹大笑 良久命給衣冠 妓輩故以女人 長衣進之 差官第先爲其掩體 受而着之 走還館所 即日逃走而去 至今慶州 自櫃差官故事 傳爲笑談之資』(15)

이렇게 苛酷할 정도의 봉변을 당했다. 筆者가 친 傍點部分을 再吟味할 때, 兩班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더욱 끝에 가서 「至今慶州自櫃差官故事傳爲笑談之資」라고 한 것은 과연 <笑談之資>이지 實譚이라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戲畫요 漫畫인 것이다.

그러나 비록 黑色長衣와 頭弄達伊의 女裝을 했을망정 全州의 巡按御史의 逢辱事件은, 우선 裸體가 아니기 때문에 現實的인 事實로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15) 「東野彙輯」中 "差官出櫃羞裸祖"의 末尾.

裸體의 등장은 小說世界에 있어서도 하나의 冒險이오, 重大事件이다. 우리의 古典小說에 裸體가 등장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이는 現代小說에 있어서도 그렇다). 春香傳·卞강쇠傳·그리고 裵裨將傳 등이다. 그런데 春香傳·卞강쇠傳은 男女의 裸體가 등장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밀스런 時間과 場所에서의 일이다. 그런데 裵裨將傳은 衆人環視裏에, 그것도 白晝에 男子의 裸體만이 露呈된다는 극히 破格的인 결구를 가져왔는데, 이는 現實을 떠난 이야기의 世界에서나 可能한 것이다. 더욱 그 裸體의 主人公이 兩班이나, 中人階級이란 것이 당시 우리 社會에서는 非現實的이라는 것이다.

다음 米櫃說話나 裵裨將傳은 한결같이 삿도와 妓生, 房子혹은 小童과 共謀하여 또 다른 삿도, 혹은 裨將을 속여서 逢辱케 하는 것인데, 이 亦是 現實의 事實과는 지나친 飛躍이다. 兩班의 奴隸인 官屬(妓生房子)들이 驕慢한 兩班에 反抗하려는 意識은 往往히 作品世界에도 나타나 있으나, 이 抗拒를 行動化한다는 것은 事實上 힘들다. 그런데 兩班인 삿도와 그 官屬들이 共謀하여 또 다른 兩班(외로운)을 無慈悲하게 裸身으로서 衆人앞에 내세우는 것은 實譚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飛躍이라고 생각한다. 勿論 作品世界에서는 不可能이 없으나——況古典小說에서야——그래도 實事가 說話로, 說話에서 小話로 移行하는 過程에서는 이 現象은 하나의 飛躍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飛躍을 可能케 하는 踏臺가 必要하게 된다.

米櫃說話나 全州의 巡按使이야기는 모두 兩班과 賤民의 共謀에서 事件이 얽혀져 나가는데, 오직 賤民만이 傲慢한 兩班을 망신시키는 說話가 있다. 이 이야기야말로 裵裨將傳을 作品으로 飛躍시키는 踏臺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某按廉爲妓狂辱>이란 이야기이다.

『昔에 一宰相이 按廉南路에 性이 簡嚴하야 不可干以私하니 列邑風肅이라 花山에 有所盼하니 情實繾綣하나 而外示泊如하야 群妓之

給事盥箒者ㅣ小失帾면 輒不貸하야 群妓患之한대 盻者ㅣ詑衆曰吾ㅣ將辱此老漢하리라 衆曰計將何辱고 盻曰浮白(浮白은 罰酒) 當以頮匜으로(頮는 洗面也오 匜은 沃盥器) 斟滿以辱之하리라 衆曰若(汝也) 信能之면 吾等이 當捧扈酒하야 爲若壽하리라 盻曰第觀之하라 春宵欲分에 壁月窺幌하고 睡睫乍開에 花影在窓이라 鴛衾이 薰暖하고 情景이 宛轉이라 忽聞戶外에 輕履響하고 又微出咳嗽聲하야 乍作乍呑에 如有趦趄伺候之狀이어늘 按廉이 感盻覺曰戶外聲이 何爲者오 盻이 顧耳審聽曰似是老孃咳嗽聲이니라 按廉曰試見之하라 盻이 出良久에 還闔戶曰老孃何無謂오하야 餘罵ㅣ微在口하야 陽若怒어늘 按廉이 迎問謂何오 盻이 俛首作羞澁態曰 村婆無知하니 不足塵雅聽이라 하거늘 因問之한대 徐曰 村俗이 必於春秋祠에 巫聚比隣하고 家釀이 幸佳하니 雖不堪府辱貴嘗이나 想良宵에 玉況이 無聊오 吏人皆散하야 寂無人知하니 願以一觴으로 獻此賤誠이라 하니 情則發中이나 事甚僭濫이라 以是로呵遣之爾라하니 按廉曰唆無傷也라 爾何廉고 急遣回急遣回하라하니 盻承以讓에 更堅按廉之意하야 陽若追噢이라가 仍低聲曰所挈이 只隻榼이요 第欠斟器라 暮夜供具를 屛置厨間하니 今欲索取杯器면 則侍者ㅣ皆起하리니 不可煩以人也오 但 有淨匜新需盥漱者ㅣ放在卓上에 似不甚陋나 其如不恭에 何오 按廉이 怡然曰瓦盆濁醪ㅣ自是村野風味니 以盥銅으로 此瓦濁이면 已侈矣라하고 命斟促進之하니 再巡輒傾曰殊勝玉東西金叵羅(俱盞名)라하고 仍勗盻曰愼毋泄하라하니 不知盻有夙謀라 群妓ㅣ方且蟻付其壁하야 屛氣目牖而窺之也러라. 其倅ㅣ又以事로 嘗遭譴하야 考當下下라 倅ㅣ召盻謂曰倘有若力이 足以解紛이면 敢不以一家產奉酬이리오 한데 盻이 謝曰謹盡心하리라하다 議考之夕에 盻이 從窓隙竊聽하니 則欲欲置下考어늘 盻이 即於屛緯間에 急作呻吟聲하야 卒心痛幾絶之狀하니 按廉이 陽便施入하야 拊盻背曰何病之急乎아 盻이 怒曰非病也라 病吾倅之見狂也

로다 嘗聞古語하니 愛其人者는 愛及屋上之烏라하니 矧吾遇遇下리오 一以仁不能爲賤物하야 小垂貸否아하고 因提耳密語曰事危而復釋하니 賤身生事ㅣ在是矣라 賤身이 幸荷顧眄之私어니와 能無一惠可後日乎아 按廉이 重加商量曰業已議僚佐하니 如之何오 盼이 且啼且讓(誚責也)타가 以兩足으로 加按廉肩하고 挾持其頸曰當械此老漢矣리라하니 按廉이 笑曰玉械殊不凡이라하고 唯諾而出하야 改置中中하다.』(16)

이 이야기는 妓女가 簡嚴한 按廉使를 逢辱게 한 것이나, 어디까지나 妓女單身으로 비밀스런 時間과 場所에서 전개된 事件이다. 妓女들이 옆房에서 엿보기는 했으나 이는 按廉使는 모르는 사실로 白晝에 衆人앞에서의 逢辱과는 類가 다르다. 謹嚴하기만 하고, 虛張盛勢를 일삼는, 그러나 好男型의 男兒는 곧잘 당할만한 實譚일 것이다. 當時에는 사실 이런 일이 許多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現實的으로 可能한 이야기가 漸次 說話化하여 興味의 꽃과, 誇張의 가지를 쳐서 裸體로 衆人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實譚에서 小說에까지로 昇華되는 過程을 可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按廉狂辱>→<全州巡按使>→<米櫃說話>→<裹裨將傳>

이 되어 說話의 小說化過程을 合理的으로 理解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4. 林白湖의 逸話와 小說—結言을 대신하여

林悌(1549~1587)는 39세로 夭折한 사람이지만, 여러가지 흥미있는 逸話를 많이 남겨놓았다. 당시 黨爭이 熾烈할 때이지만 白湖는 그 渦中에 휩쓸리지 않고, 벼슬은 겨우 禮曹正郎兼知制敎에 머물렀다. 그 爲人이 사내답고 호탕하여 李珥·許筠·楊士彦等은 그의 奇氣를 極口 稱讚까지 했다. 또 그는 個性이 두드러지게 強하여 남에게 卑屈한 짓을 절

(16) 金安老編, 「龍泉談寂記」.

대로 하지 않는 孤高의 志士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浪漫이 넘쳐흐르는 사람이다. 이런 人物이기에 閭巷에 또는 紅燈街에 색다른 이야기를 남겨 놓았다.

本稿에서 다루는 林悌의 逸話는 史實과 符合하는가의 如否는 不問에 부친다. 이미 野談으로, 說話로 人口에 膾炙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白湖와 妓生과의 逸話를 中心으로, 妓生이 등장하는 所謂 戀愛小說과를 연관시켜 보려한다. 그런데 우선 그 人間됨을 이해케하는 逸話(妓生과는 無關하지만) 하나를 소개하겠다.

『林白湖悌의 字는 子順이니 少時에 一友로 더부러 一巷을 過ᄒᆞ더니 其巷內에 宰相家가 有하야 適其時 大宴을 設하고 賓客을 饗하나 素昧平生이라 悌가 거짓 友人다려 謂하야 曰我가 是主로 더부러 平昔契分이 有하니 君이我를 從하야 宴席에 入參코ᄌᆞ 하느냐 友가信之無疑하고 曰諾다 悌曰然則子는 此門外에 立하야 姑待하라 我가 先入하야 主人에게 言하고 君을 相邀하리라 하고 悌가 先入하야 座末에 揖坐한 後一言을 發치 아니하더니 坐客이 心疑하야 主人다려 暗問하야 曰彼子가 主人의 友이냐 主人曰否라 主人이 他客다려 問曰彼子가 或客의 友이냐 客曰否라 言訖에 相顧冷笑하는지라 悌가 그제야 發言하야 曰僉君이 我를 笑하ᄂᆞ냐 我보다 可笑할 者가 有하야 方今門外에 久立하야 我口를 望하고 食을 待하ᄂᆞ니라 主人이 聽罷에 크게 笑하고 悌로부터 酬答하며 그 豪傑의 士됨을 知하고 門外客을 招入하야 서로 懽飮하니 門外客은 더저 悌가 主人과 親分이 有함만 知하고 그 唐突籧篨하야 自家를 賣함을 不知하얏더라.』(17)

이 이야기에서 白湖의 唐突하면서도 餘裕있는 諧謔이 그의 豪傑다운 人品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白湖의 逸話는 역시 妓生이 곁드린 것

(17) 「實事叢譚」 卷一 "可笑門前待食人".

이라야 그 眞味를 맛 볼 수가 있다. 그리고 白湖와 妓生과의 艶聞도 적지 않다.

『莫怪隆冬贈扇枝 爾今年少豈能知 相思半夜胸生火 獨勝炎蒸六月時』(18)

이것은 白湖가 자기가 사랑(?)하는 妓生에게 선사한 부채에 써준 詩이다. 三冬에 부채가 무슨 필요가 있을가마는 가슴에 타는 사랑의 불꽃은 역시 이 부채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다. 情熱과 浪漫이 서려 있는 이야기이다.

『靑草 욱어진 골에 자는다 누엇는다
紅顏을 어듸 두고 白骨만 무쳣는다
盞잡아 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허 하노라.』

이 時調도 妓生인 黃眞伊의 墓를 찾어가서 술 한잔을 붓고 부른 노래이다. 傳說에 依하면 朝廷의 官員인 白湖가 妓生의 墓前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官職을 削奪當했다고 한다. 그 眞否는 모르거니와, 白湖로서는 그 까짓 官職쯤은 弊履같이 버렸으리라. 그러나 妓生에 向한 純情(?)은 오히려 더 熱烈했을지도 모르리라.

『平壤에 一枝梅라 ᄒᆞᄂᆞᆫ 妓가 有ᄒᆞ니 文筆歌舞와 容貌體態가 營中에 第一로 擅名ᄒᆞᆫ지 已久ᄒᆞᆫ지라 監司四五等에 隨廳을 不應ᄒᆞ더니 新監司가 下去ᄒᆞᆯ시 祖餞客이 天然亭에 會集ᄒᆞ미 一枝梅의 話端이 出ᄒᆞ야 或은 歌舞音律을 言ᄒᆞ고 或은 文章容貌를 稱ᄒᆞ야 一場을 聳動ᄒᆞᄂᆞᆫ지라 就中林白湖曰吾가 下去率ᄒᆞᆯ터이니 諸公이 장차웃지ᄒᆞ랴 ᄒᆞᄂᆞ뇨 一座曰公이 率來ᄒᆞ면 我等이 公과 一枝梅의 同居排置를 擔當ᄒᆞ리라 監司가 到任後에 隨廳을 分付ᄒᆞ되 亦施行치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이에 林白湖가 下去ᄒᆞ니 時ᄂᆞᆫ 七月望間이라平壤에 入ᄒᆞ야 身上衣服을 換着ᄒᆞ미 弊袍破笠이 襤褸莫甚ᄒᆞ더라 幾日을 遊玩ᄒᆞᆫ 後一日은

(18) 「記聞」의 記錄을 「朝鮮解語花史」(李能和著)에서 引用.

夕陽을 乘時ㅎ야 腐傷ㅎ 幾尾魚를 肩擔ㅎ고 此門彼門으로 來去叫賣ㅎ다가 薄昏時候에 一枝梅의 門首에 至ㅎ니 一小女使喚이 出ㅎ야 生鮮의 價錢이 幾何를 問ㅎ야 彼此間說往說來ㅎ니 時가 已晩ㅎ지라 白湖가 托宿을 請ㅎ되 不納ㅎ거ㄴ 百番懇乞ㅎ야 門間一處를 借得ㅎ야 破席一片에 瓦枕을 拿ㅎ고 假睡ㅎ니 此宵에 月色은 滿庭ㅎ고 凉颼近簾이라. 一枝梅가 寂寂ㅎ 懷抱를 堪치 못ㅎ야 尺琴을 携ㅎ고 月下에 端坐ㅎ야 一曲을 細奏ㅎ고 清歌를 發ㅎ거ㄴ 白湖가 腰間에 帶ㅎ 玉簫를 出ㅎ야 其歌를 依和ㅎ니 簫韻歌響이 참으로 絶世知音이라 一枝梅가 且驚且喜ㅎ야 庭下에 彷徨ㅎ며 簫聲의 來處를 知ㅎ고ㅈㅎ나 餘音은 空外飛去ㅎ고 明月은 白晝와 갓튼지라 이윽고 嘆息ㅎ다가 다시 堦上에 立ㅎ야 曰窓白羲皇月이로고 忽然人語가 有ㅎ야 曰軒清太古風이로다. 一枝梅가 다시 喫驚ㅎ고 四面으로 踪跡을 尋하나 影響이 無ㅎ고 다만 門間에 生鮮商은 鼻聲이 鼻句ㅎ야 睡鄉에 在ㅎ지라 悵然히 다시 吟曰錦衾을 誰與共코 生鮮商曰客枕一隅空이라 一枝梅가 聽ㅎ기를 了치 못ㅎ야 一步로 堦에 下ㅎ야 生鮮商臥處에 至ㅎ야 踢起ㅎ되 何許好漢子가 弱膓을 攪亂케ㅎㄴ뇨 仍ㅎ야 셔로 樓抱ㅎ고 房中으로 入ㅎ야 精潔ㅎ 衣服을 換着ㅎ고 夜가 終토록 唱樂ㅎ다가 日曙ㅎ을 覺지 못ㅎ고 朝査에 闕參ㅎ니 營中好令이 星火갓치 門外에 至ㅎ야 二人을 併히 捉去ㅎ니 監司가 下視ㅎ며 即林白湖라 곳 房中으로 迎入ㅎ야 더부러 歡飮ㅎ고 京中諸宰에게 其事由를 一切書通ㅎ야 處處에 傳播ㅎ야 當時 一話柄을 作ㅎ니라』(19)

三冬에 妓生에게 부채를 선사하고, 妓生의 무덤에서 그녀의 魂魄과 술을 나눌 줄 아는 白湖로서는, 능히 生鮮장사가 되어 當代의 名妓를 낚아낼 수 있는 爲人이다.

<이實事>가 한갓 蕩兒·遊女의 一時的인 豪遊라기 보다는 여기엔

(19) 「實事叢譚」 卷一 "風情月白一枝梅".

眞實한 人間性과 風流가 넘쳐 있고, 또 그 時間과 空間이 빚어주는 싸ㅡㄴ은 정영 小說的이다. 그러면서도 裸體로 逢辱當하는 裵裨將傳처럼 非現實的인 內容이 아니다. 現實에서 얼마든지 可能한 逸話이며 또 實事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小說化될 가능성은 무척 濃厚하다. 魅力的인 妓生과 風流男兒의 등장, 華麗한 宴會, 假裝의 사나이 端役格인 女婢, 그리고 달밤이오, 色鄕이라는 여러 條件이 이미 小說的 雰圍氣를 충분히 조성시키고 있다.

과연 李朝의 小說中, 妓生이 등장하는 戀愛小說로서, 그 舞臺를 朝鮮에 둔 作品은 거이가 이 白湖說話와 同系이라는 것은 注目의 對象이 된다. 아래에 妓生과 관련된 代表的 作品 몇을 들어 白湖說話와 비교해 보겠다.

<玉丹春傳>

"玉丹春은 平壤의 名妓이다. 李血龍이란 青年이 竹馬故友인 金眞喜——그는 平壤監司였다——를 찾어갔다. 乞人行色을 하고 간 血龍을 監司는 달가워 하지 않었다. 그러나 鍊光亭 宴席에서 乞人 血龍을 본 妓生 玉丹春은 첫눈에 그에게 惑하였다. 玉丹春은 死境에 빠진 血龍을 救해서 그와 사랑하게 되었고……."

<李進士傳>

"主人公 李進士는 凶年으로 生計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放浪의 길, 乞人行脚에 나섰다. 江西縣監인 外叔에게 갔으나 환영을 받지 못하고 平壤으로 직행했다. 때 마침 百日場이 있었다. 李進士는 이에 應해서 壯元을 했다. 平壤監司는 그의 詩才를 稱讚해서 大宴을 베풀었는데 그 宴席에는 本府의 名妓인 瓊貝가 있었다. 그녀는 첫눈에 李進士에게 惑했다. (乞人과 같는 李進士에게) 그래서 둘은 사랑하게 되었고……."

<彩鳳感別曲>

"彩鳳은 金進士의 딸이다. 獄中에 있는 아버지를 救出하려고 妓生이 되었다. 妓名을 松伊로 한 그녀의 명성은 平壤장안에 떨쳤다. 기생이 되기 前에 사랑하던 男子 姜弼成을 만난 松伊는 다시 사랑을 계속할 수 있었다. 平壤監司의 好意로 松伊는 妓籍에서 벗어 났고, 弼成은 賤한 監營의 吏房이 되어 서로 만나서 사랑을 계속했다……."

위에 例擧한 作品들은 모두 春香傳과 함께 李朝의 代表的인 戀愛小說들이다, 이 밖에도 愛情小說은 許多하나 擧皆가 中國을 舞臺로 한 것이기에 여기서는 論外로 했다.

위의 세 作品의 共通點은

첫째, 女主人公이 妓生인데 한결같이 名妓이며

둘째, 舞臺가 모두 平壤이고

셋째. 男主人公은 無名의 人士들이라는 것들이다. 妓生은 身分은 賤하나 그 社交의 對象은 赫赫한 벼슬아치들이고, 그 活動舞臺가 華麗하고도 幅이 넓다. 그러면서도 美貌와 詩·畵·歌舞의 才藝를 가지고 있어 小說이나 說話의 主人公이 되기에 魅力的이다. 그리고 舞臺가 平壤이란 것은 그것이 李朝末葉의 經濟的 中心, 곧 商賈의 中心地 였었고, 그러기에 蕩子·遊女가 모일만 했고, 더욱 平壤의 實權者인 監司는 政客들이 선망해 마지않는 자리이다. 그래서 平安監司를 中心으로 벌어지는 逸話가 많으므로 平壤이 作品의 背景이 되는 것은 오히려 當然하다. 끝으로 男主人公의 문제인데, 이는 가장 흥미있는 共通點이다. 乞人. 혹은 生鮮商人, 아니면 微官이던가 平民이던가로 되어 있고, 이 男子가 妓生을 사이에 두고 監司나, 또는 높은 벼슬아치와 競爭이 되어 결국은 賤한 身分이 凱歌를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個性의 發見이랄가, 人間性의 發見이라고 할 정도로, 그 時代的인 覺醒을 뜻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돈이나, 벼슬보다도 그 人間自體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

었다는 것이다. 勸善懲惡을 主題로 하는 李朝의 小說들, 그 中에서도 戀愛小說은 權力이나 金力으로 女人을 낚고, 또는 妓生을 手中에 넣으려는 許多한 現實에 厭症을 느꼈던 것이다. 여기에서 善을 勸奬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것이 權力도 金力도 없는 하나의 人間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李朝末의 戀愛小說들이 비록 描寫에 있어서는 春香傳에 뒤질지는 몰라도, 이 裸裸한 人間性을 내세운 것은 春香傳보다 훨씬 飛躍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春香傳의 李道齡은 權力과 金力과 人間을 완전히 具備한 사나이로, 이런 人間型은 現實的으로 偶像的 存在요, 따라서 作者가 제멋대로 만들어낸, 이른바 造作人物에 틀림 없다. 그러나 <弼成>(彩鳳感別曲)이나, <李進士>(李進士傳). 그리고 <血龍>(玉丹春傳) 같은 男子들은 당시 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 人間型들이다. 白湖는 이런 不遇한 失意의 青年들을 代表하고 또 代辯해 주는 實存의 人間이었다.

끝으로 하나 더 敷衍할 것은 作中人物이 乞人으로, 暗行御史로, 또는 장삿군으로 변모하여 登場하는 것은 모험과 스릴을 곁드려서 劇的인 效果를 충분히 들어내는 契機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春香傳에서는 暗行御史라는 절대적인 權力者로 君臨하였으나, 玉丹春傳이나 彩鳳感別曲에서는 微賤한 平民이나 乞人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前者는 權力世界를 背景으로 하여 통쾌한 복수를 하려는 것이고, 後者는 철저히 人間의 勝利를 謳歌한 것이다. 李道令이 한때 乞人이 되기는 했으나 이는 暗行御史를 前提로 하였기 때문에 人間 李夢龍을 위해서는 그 意義가 그다지 크지 못하다. 오직 春香의 사랑이나, 月梅의 人間을 테스트하는데 不過했던 것이다.

要컨대 白湖 林悌의 逸話가 說話나 小說界에 注目할 만한 영향을 끼쳤음은 사실인데, 이것도 白湖의 人間性과 또 그의 相對役인 妓生의 人間性이 당시 社交界에서는 熱狂的인 人氣를 끌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實事에서 說話로, 다시 說話에서 小說로 승화하는 過程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說明해 주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 × ×

이상에서 나는 序를 대신하여 <野史와 說話>를 들어서 實事, 野史 그리고 說話와의 관계를 설명했고 本論에서는 根源說話가 未解決인 채 放置되었던 <雍固執傳>의 母胎說話를 追究했고, <裵裨將傳>을 들어서 實事→說話→小說의 過程을 考察해 보았고, 結言을 代身해서 白湖의 實事와 戀愛小說을 연관시켜서 <說話의 小說化> 問題를 究明해 보려 하였다.